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앞장'

### 전주시, 통합사례관리사·관광 통역 안내 등 총 30명 규모 공무직 공개경쟁 채용 공고 전주시 시설관리공단·탄소융합기술원·공예품전시관 등 출연기관들도 채용 나서

전주시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활기찬 일자리도시를 만들고 있다.

시는 공무직 공개경쟁 채용, 시 산하기관·출연기관·유관기관 채용공고 등을 통해 약 80명 규모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공무직 직원 30명을 새로 뽑기 위한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돌입했다.

이번 채용은 △통합사례관리 사회복지사 12명 △통합사례관리 간호사 4명 △국가결핵관리 간호사 1명 △상수도 이수변 관리 전담인력 2명 △농산물 안전 분석 전담인력 2명 △관광통역 안내 전담인력 (중국어) 1명 △건축설비 기능사 1명 △도서관 사서 7명 등 올해 퇴직자 4명과 신규사업

으로 인한 증원 26명 등 30명 규모다.

응시자격은 공고 전일 기준 전주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만 60세 미만 시민 중 분야별로 고 등을 통해 약 80명 규모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응시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9일까지 응시원서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자격득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전주시청 지하 1층 회의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공무직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

항은 전주시 홈페이지(<http://www.j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도 직원 22명을 뽑는 '제3회 경력경쟁 및 직원 공개경쟁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분야는 일반직 경력경쟁 1명과 △기록물관리 1명 △전자전기통신업무 지원 1명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1명 △기계시설물 유지관리 1명 △체육지도자(수영) 1명 △시설물 안전관리 2명(안벽, 수영) △통합관리 지원 1명 △디지털 택시 차량운전원 10명 등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12월 3일부터 9일까지이며, 시설관리공단은 서류심사와 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3단계 전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도 오는 27일까지 전주공예품전시관 직원(일반직) 14명을 공개채용하기 위한 원서를 접수한다.

이외에도 전주시육아종합센터는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실 직원 4명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정규직인 교육인사팀장(7급 상당)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전주문화재단은 팀장급 1명과 직원 2명 등 3명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기간제직원 7명을 채용하는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부문 2단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대상 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경우 5개 분야 6개 직무에 대한 정규직전환 절차도 동시에 진행된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활기찬 일자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덕진구청은 덕진구청·덕진소방서·소방전문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합동훈련 방식의 '2019년 전주시 덕진구청 소방 합동훈련'을 21일 청사 정문에서 실시했다.

## 화재·재난대응 '실전처럼'

### 덕진구, 소방서 등과 민·관 합동 소방훈련

전주시 덕진구청(구청장 김종업)은 덕진구청·덕진소방서·소방전문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합동훈련 방식의 '2019년 전주시 덕진구청 소방 합동훈련'을 21일 청사 정문에서 실시했다.

2019년 전주시 덕진구청 소방 합동훈련은 자위소방대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동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덕진구청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상황을 부여하여 비상대피방송 발령, 각종 대피 유도, 부상자 이송, 물품반출 및 소화기·육대소화전을 사용한 화재진압

등으로 이어졌다. 훈련 종료 후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직원 자신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김종업 덕진구청장은 "이번에 실시한 2019년 덕진구청 소방 합동훈련을 통해 직원 여러분들이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법을 숙지하여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서서학동 소나무공동체 김장김치 나눔 행사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동장 황의석) 소나무 공동체(대표 양인화)는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흑석골에 위치한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겨울맞이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양인화 소나무공동체 대표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만큼 서서학동 이웃들이 맛있게 드시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속적으로 나눔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21일 전주시청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인 '전주시 맑은공기선도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발족식을 가졌다.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전주, 함께 만들어요'

### 시, 맑은공기 선도도시 추진위원회 발족식 개최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21일 전주시청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인 '전주시 맑은공기선도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발족식을 가졌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학계·연구기관·환경단체·시민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된 '전주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보완하거

나 신규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집단지성(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창구의 역할도 맡게 된다.

위원회는 또 정례회의를 개최해 미세먼지 저감, 민관계속 건강보호 등 전주시 미세먼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공기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고민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를 한파와 폭염 같은 재난으로 규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매년 85억원 씩 총 340억원을 집중 투자해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소모하는 창구의 역할도 맡게 된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대기질 개선이 시급해지고 있어 겨울철과 이른 봄철에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맑은공기선도도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건협 전북지부, 김장봉사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본부장 배기웅)는 21일 건협사랑어머니봉사단과 함께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참사랑나눔원에서 '사랑의 김장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에서는 약 2천여 포기 of 절임배추에 소를 버무려 김장김치를 담갔으며 김장김치는 밀반찬 및 찌개 등으로 조리하여 참사랑나눔 생활인들의 밥상을 풍요롭게 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손님으로 가장해

### 웃 훔친 30대 '덜미'

21일 전주완산경찰서가 손님으로 가장해 진열된 옷과 물건을 훔친 30대를 철도협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17일 오후 7시 30분께 완산구 모 옷가게에서 3만 5000원 상당의 카디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손님인 척 들어가 옷가지와 장신구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번 달 18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전주 시내의 옷가게를 돌며 17회에 걸쳐 총 120만 원 상당의 옷가지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수사망을 좁혀あげ 오전 10시 주거지 근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습관적 도둑으로 순간 목숨이 그렸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추가로 훔친 것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정다운 기자

## 소상공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 전주시, 내년 5월까지 기간 연장 대상은 1억2000만원 이하까지 지원율도 최대 50만원으로 늘어

전주시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확대해 내년 5월까지 연장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원기준을 기존 연매출 8800만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매출 1억2000만원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지원율도 기존 0.3%(최대 20만원)에서 0.8%(최대 5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지원을 확대에 따라 기존 신청자에 대해서도 변경된 지원율에 따라 증액된 지원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전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 유흥업과 도박업 등 지역선용보존제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의 소상공인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내년 5월 예산소진 시까지 카드수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와 함께 △2018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2018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전주시 일자리창원 정책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또 팩스(063-281-2614)와 이메일(sjtrp37@korea.kr)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지원 기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조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소상공인은 전주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http://www.jon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로타리클럽과 함께하는 사랑의 무료급식'

### 금암노인복지관 공감데이

전주시 금암노인복지관(관장 서양열)은 지난 20일 복지관 일대에서 지역주민 및 어르신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타리클럽과 함께하는 사랑의 무료급식'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제7회 공감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금암노인복지관이 전주 3지역 로타리클럽(전주동·제일·백제·한누리·동백)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광인숙 로타리클럽 전주 3지역 차기총재를 비롯한 회원 50여명이 참여해 지역 어르신 500여명에게 따뜻한 점심 떡국을 대접했다.

또한 복지관 본관 및 일대에서 진행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제7회 공감데이'에서는 △비즈공예 △방향제 만들기 △네일아트 △법률상담 △공감



마차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돼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이날 공감데이에 참여한 조찬문 어르신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주신 복지관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오늘처럼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